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①

‘바르고 온전한’ 그리고 ‘적절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禪定)은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우니라.”

이 경문은 <범구경(法句經)>의 계승 제 372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그야말로 불교의 수행 길에서 명상과 지혜가 중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협력관계 또는 보완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가 니까야> 제 16 <대반열반경>에서도 ‘계(戒)’와 더불어 온전하게 닦아진 ‘명상’이 큰 결실을 이루고 커다란 유익함을 가져오며, 명상과 함께 온전하게 개발된 지혜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한 결과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율과 명상과 지혜

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지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부처가 행한 최초의 설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팔정도 전체가 ‘적절한 길’(中道)의 추구임을 먼저 점검해 보자.

중도(中道)의 기본적인 뜻이 ‘가운데 길(majjhima maggo)’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때의 ‘가운데’는 공간적인 또는 수학적 중간을 의미하는 것에 멈추어 있지 않다.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 등이 중도를 실천하는 핵심이라는 설명은 기존의 <불교학개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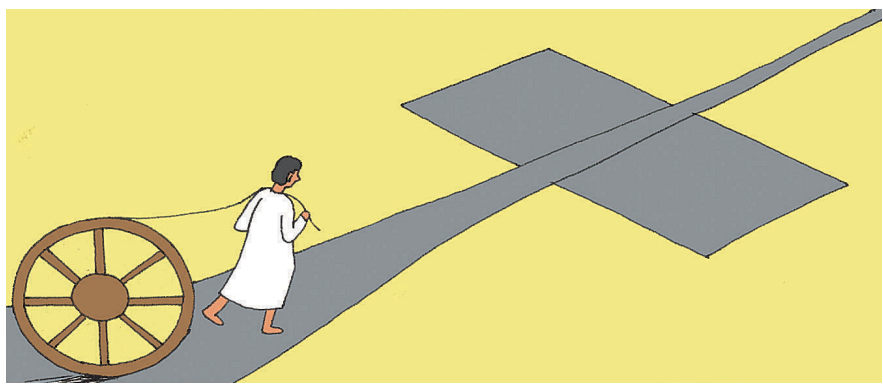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는 불교의 수행 길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정·혜’라는 이 세 가지 공부가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수행의 길로 제시한 모범은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에서 만나게 된다.

팔정도의 체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수행 길의 면모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자어 ‘정(正)’자의 의미를 먼저 바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정(正)’에 ‘올바르다’는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여덟 가지 항목에서 모두 ‘바른, 올바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된다.

‘정경’의 팔리어는 ‘삼마(sammā) 디티(ditthi)’로, 여기서 ‘삼마’가 바로 ‘정’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삼마’에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올바르다’의 뜻이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 바로 ‘완전함’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삼마’의 의미를 옮기면 ‘바르고 온전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므로 정경은 ‘바르고 온전한 견해’가 된다.

‘온전하다’는 의미를 더하면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의 어느 것도 한 번의 수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이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길을 성스럽다고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충실하게 찾는 것이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의 의미와 그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하나의 길이라.

여기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창으로 건널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보행자로서 건널목을 지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자. 이때 건널목의 녹색 신호등이 점멸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대강 무시하고 앞으로 내달리려는 차와 서둘러 건너가려는 보행자의 의지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지점이 생겨날 것이다. ‘건널목 녹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순간’은 그저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다음 행위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늘 자신의 ‘감정, 의도, 가치, 관점, 견해, 알’이 개입되어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재빨리 도로를 내달리려는 승용차의 질주본능과 서둘러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보행자의 의지 중에서 누가 옳은 것일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그대는 자비보살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서울 흥은동에는 ‘백미(白米)선사’로 불리는 한 스님이 있다.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78)이다. ‘백미선사’는 청소년, 군, 재소자포교와 노인복지에 오랜 공을 기울여 온 현성 스님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많이 보시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제는 하얀 눈썹의 백미(白眉)선사로도 불리는 현성 스님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흥은동 현성정사에서 만났다.

현성 스님은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1980년대부터 독거노인·청소년·재소자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스님들이 포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성 스님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포교활동에 매진하기란 쉽지 않다. 스님은 포교 각 분야에서 30년 넘게 정성을 들여왔다.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풍족함도 공평함으로 바뀝니다. 다들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남을 위하는 작은 선행, 보시행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보시행이 일상생활로 젖어드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사실 스님이 주석하는 현성정사는 크지 않은 절이다. 수십년간 포교를 진행한 데에는 스님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다.

스님은 포교와 봉사의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고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에,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가보면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추위만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아요. 어디 수행이 따로 있었습니까. 이들을 보살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지요.”

은사 청담 스님의 큰 가르침 ‘인욕’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1964년 출가했다. 비구·대차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인욕보살’로 유명한 청담 스님은 어느날 현성 스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당시 현성 스님은 도봉산 자락의 도선사까지 청담 스님을 업고 다니곤 했다.

“몸이 좋지 않았던 큰스님이 하루는 산 중턱에 쉬자고 하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불교정화하면서 양심이 많은데 태고종 쪽에서 내게 폭력을 가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고 답하니 스님은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합장을 하고 서서 염불을 하라’는 습니다.”

“봉사하는 삶 평생의 課業”...



현성 스님은... 193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현성(玄淸)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도선사 실달승가학원과 국민대를 졸업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 동 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4, 5, 6, 8대),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 중단 내외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 흥은동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현재도 안양교도소 불교 종교위원회 회장,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총재로 재소자포교와 청소년포교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부문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다.

1964년 청담 스님 은사로 출가 ‘큰중은 지고 살아야’ 가르침 수지 부산 선암사에서 수좌로 수행 정진

현성 스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은사 스님은 평소 큰 중이 되려면 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지나며 스님이 말씀하신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젊어서 기골이 장대했던 스님은 도선사에서 빨감을 만들고 공양간 일도 하는 등 곳곳을 도맡아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배고파가며 힘든 울력을 나서서 했다.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내했다. 그러던 와중 한 도반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다. 은사 스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스님은 단

호했다. 도선사에서 나온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로 향했다. 당시 선암사에는 석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켜던 석암 스님은 삼배를 올리며 이곳에 머물겠노라는 현성 스님의 청을 듣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청담 스님 제자면 거기서 살아야지 여기는 안됩니다.” 현성 스님은 “스님, 한철만 지내보시고 씩이 없다면 가라고 하십시오. 그럼 가지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석암 스님은 이런 현성 스님에게 몇 가지 청규를 제시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찰이니 농사일을 도울 것, 둘째는 참선을 하더라도 가끔 제사가 있으니 금강경을 읽어줄 것, 셋째는 제사음식을 귀신이 먹다 남은 것이라 해서 가리지 말 것, 넷째는 아침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과 볼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과 볼

- 과볼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품 : 휴대용 가방(과볼+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나무, 소원종, 소원의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목 : 구룡의 기원
- 크기 : 49.586㎡ (15평)
- 작품소재사찰 :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노인·소년가장·재소자 ‘대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현성 스님이 서대문구 저소득 가정에 쌀 100포대를 전달하는 모습.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해 '백미' 선사로 불린다.



현성 스님이 2015년 10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에서 훈련병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2016년 6월 제5군단 호국 금강사 위령제. 스님이 군법당 불사 후 위령제까지 후원하고 있다.

1980년 도선사 주지 맡아 사적 일신
군법당 14곳·해명양로원 건립도
교정교화 현재도 발벗고 나서
“타인 배려할 때 함께 행복해”



스님이 총재로 있는 청소년교화 연합회의 2013년 5월 열린 전통예술제 모습.

올려야 빠짐없이 참여할 것이었다.
현성 스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었다'고 다짐하고 선방에서 참선과 계율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겨울철 선암사에서 17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참선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스님은 일주일 만에 몸이 축이 났다. 용맹정진의 의지로 이겨낸 현성 스님은 당시 결제를 마친 7명 중 한명이 됐다. 그 날 이후 현성 스님은 12년을 선암사에서 살았다.
이 기간 스님은 온갖 어려움에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어디든 법문하러 다니는 석암 스님도 잘모셨다. 이런 용맹정진하는 모습 때문이었을까. 1200일 기도 중 석암 스님이 보살계를 설하는 법석을 항상 수행했고 후에 인환 스님, 고산 스님 등과 함께 '법제자'가 됐다.

대를 누렸다. 스님은 특히 1985년 불사한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위령제를 30여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5군단 위령제는 2000년대 용산전쟁 기념관에서 열리는 호국영령천도법회 전 종단 차원의 위령제로 진행됐다. 이밖에 스님은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불사 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군포교에 적극적으로써던 청담 스님의 영향이 크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전방부대에서 통일염원 기도를 올린 뒤 스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스님께서서는 장병들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군법당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내면을 가득채우는 부처님오신날 되길”
불교노인복지의 한축이 된 해명양로원은 스님이 도선사 주지 시절 처음으로 진행한 불사이기도 했다. 1982년 4월 개원한 해명양로원은 시주금만으로 지어졌다.
“출가해서 살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니 어르신들에게나마 갚아야지요. 늙고 병든 것 만큼 인생에 고달픈게 없습니다. 힘들 때는 작은 배려 하나로 서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현성 스님은 청소년 포교에도 힘썼다. 석주 스님과 운문 스님에 이어 당시 어려운 살림에 처했던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았다. 앞서 건립한 양로원에서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처럼 캠핑하며 노는 포교보다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려했지요. 해명양로원에서 아이들이 어르신들 말벗도 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

포교 일선의 크고 작은 불사 도맡아
세월이 흘러 1970년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할 때 현성 스님은 은사 스님을 찾아갔다. 수행량 자로 거듭난 스님의 모습에 은사 스님은 반갑게 맞이했다. 이후 현성 스님은 1980년 12월 도선사 주지를 맡게 된다. 본격적으로 청담 스님과 석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스님은 12년간 도량을 정비하고 가람을 중창했다. 대웅전과 석불전, 명부전, 적묵당, 독성각, 요사, 종각, 일주문, 사적비, 청담 스님 탑전 108계단 조성불사 등 크고작은 불사가 스님의 손을 거쳐 이뤄졌다. 포교당으로 봉천동 해명정사(顯 미 타정사)와 흥은동 현성정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또 은사 스님이 큰 관심을 보였던 군포교에 전권해 14곳의 군법당 건립을 주도하고 수계사로 전방부

것이 제대로된 포교 아닙니까.”
스님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재소자 교화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어느 사람보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있다.
스님은 교화위원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8년부터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시작했다. “안양교도소에 매달 한 번씩 나가지요. 1981년부터 음력설날 80kg 쌀 13가마로 떡국공양,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수계식 때는 전 재소자에게 빵과 두유공양을 합니다.”
스님은 5월 11일에도 안양교도소를 찾아 전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범문할 예정이다.
스님은 끝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 발전을 외치기보다 한명의 불자로서 알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지 반추해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스님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많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다”며 “서로 돕고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이, 나눌 수 있는 이가 진정한 부자다. 여러분들도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다독이며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리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량의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현성 스님의 자비 나눔에 대한 답소는 이어졌다. 스님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원력 때문일까. 스님의 흰 수염이 더욱 빛나 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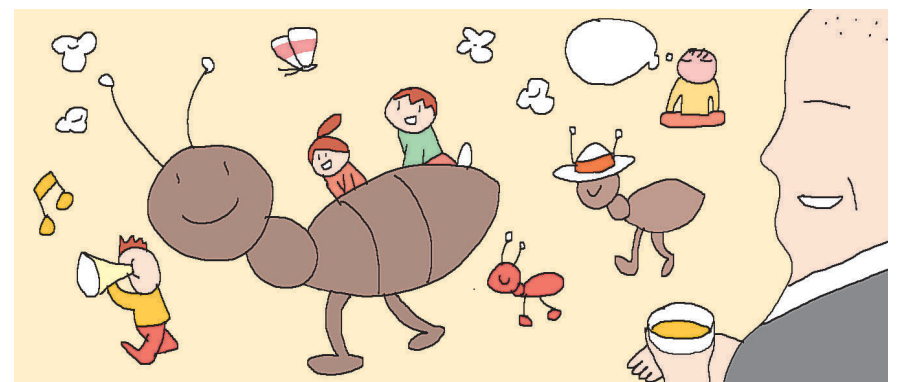
전법일기

연꽃둥이들과의 다도시간

내가 있는 구미 연꽃어린이집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과 차를 마신다. 이날도 우리 연꽃둥이들의 재기발랄한 수다는 끊임 줄 모르고 계속된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근데요. 원장 시님, 오늘 우리 무슨 차 마셔요? 구름 맛 차 마셔요? 아니면 기차맛 차 마셔요? 알겠냐. 개나리맛 차를 마시는구나~”
저런 맛이 나는 차가 있을까? 있다. 우리 연꽃어린이집에는, 차를 마시는 화요일은 다도시간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숨소리를 고르고 숨소리를 나누며 교감하는 날이기도 하다.

앞마당 벚꽃이 가장 예쁘게 핀 4월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앞마당에 차를 마실 때였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차를 마시기

명상 안하고 자꾸 움직여요.”
“그래? 두 눈을 꼭 감았는데 개미 보여?”
“조금 보여요.”
“그럼 네가 개미한테 명상하라고 해.”
“개미! 명상해.”
“응! 형아 말 좀 들어.”
“원장 시님, 그래도 개미가 생각다리 안 해요.”
어떻게 해야 개미다리를 생각다리로 만들어 명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자 옆에 앉아 있는 친구까지 덩달아 또 한마디 거든다.
“원장 시님, 근데요. 이 개미는요 아직 차도 안 마셨는데요. 자꾸 다식만 먹어요. 그리고요, 개미는 입도 안 가리고 다식 먹



그림·박구원

전 두 다리를 '생각다리(반가부좌)'로 만 들고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앉아 명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우리 연꽃어린이집 파란연꽃반 친구들도 원장 시님처럼 명상다리 해볼까요?”
“원장 시님, 아빠 다리하면 아빠 생각나지요? 엄마 다리 하면 엄마 생각나지요?” 연꽃둥이들의 이런 독특한 발상이 너무 재미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부처님처럼 생각다리를 하고 이제부터 '생각주머니 커져라'를 할거야. 자~ 숨 한번 크게 쉬고~ 노란색 풍선과 함께 숨을 내쉬고~ 생각주머니가 커졌나요?”
아이들은 일제히 '네'라고 대답한다.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명상을 유도한다.
“자, 그럼 커진 생각 주머니 속으로 예쁜 물고기들이 들어갑니다. 몇 마리 들어가나 원장 시님이 세어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게 생각주머니를 키워가고 있는 순간, 두 눈을 꼭 감고 생각다리로 명상을 하던 연꽃둥이가 기상천외한 한 마디를 한다.
“원장 시님, 근데요 개미가 아까부터

어요.”
관념과 생각의 틀에 묶여 사는 우리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상상력들의 향연이다. 그나마 어떻게 해야 개미가 입을 가리고 다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오늘은 개나리맛차를 마시고 큰 소리로 마무리 한다.
“차를 많이 마시면 얼굴이?”
“에빠져요~”
“차를 많이 마시면 마음도?”
“에빠져요~”
“오늘도 차를 많이 마셨으니 우리 연꽃 친구들 예쁜 얼굴, 예쁜 마음만 가져야 해요.”

이렇게 연꽃 친구들과 차를 모두 마시고 벚꽃 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 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내 한 아이가 와서 질문을 던진다.
우리 연꽃둥이들의 이 엉뚱한 생각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이 새로운 발상의 연속이다.
기분 좋은 소리로 오늘 다도시간도 마무리 한다.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연등및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추크

고주구 12E 3구, 4구 인지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점 용품

일사형 S형 T보리형

LED하형 LED상형 간접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